

旌義 고을(4)

김 영 돈*

目 次	
I. 머리말	VI. 住民 및 家族構造
II. 略史	VII. 生業·經濟
III. 縣廳所在地로서의 施設·遺物	VIII. 歲時風俗
IV. 傳承文化	IX. 通過儀禮
V. 社會	X. 要約 및 課題

旌義고을은 濟州道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를 말하는 바 1423년(世宗 5년)~1914년 약5세기 동안 旌義縣의 縣廳所在地였다. 문화인류학적, 민속학적인 유별난 가치를 지닌 이 민속마을에는 요마적에 이르러 관광객이 번질나게 드나들고 여러 측면에서 이 마을을 조사 연구하려는 熱意도 점차 뜨거워져 간다.

필자는 그 熱意에 발맞추어 지난날 文化財管理局에 조사보고했던 《旌義고을》(民俗資料保護區域 調查報告書 제55호 1973)을 일부 수정하면서 《耽羅文化》에 연재해 왔다. 그 보고서가 한정판이매 동학들에게 조출한 자료나마 제시하기 위한 뜻에서였다. 곧 《耽羅文化》 제2호(1983)에는 I. 머리말, II. 略史, III. 縣廳所在地로서의 施設·遺物, IV. 傳承文化, V. 社會를, 그 제4호(1985)에는 VI. 住民 및 家族構造를, 또한 그 제5호(1986)에는 VII. 生業·經濟, VIII. 歲時風俗, IX. 通過儀禮를 실었다.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 문학박사

여기에서는 이제까지의 조사 보고를 要約함과 아울러, 몇가지의 研究課題를 非體系的으로나마 제시해 볼까 한다. 이 글은 《比較民俗學》創刊號(1985)에 실었던 〈旌義고을의 實相과 그 研究課題〉를 修正 補完할 것임을 밝혀 둔다.

1

旌義고을은 해안마을인 南濟州郡 表善面 表善里에서 8km쯤 올라간 아늑한 山村이다. 1984년 정부지정 민속마을로 확정된 이래¹⁾, 지난날의 旌義縣廳 所在地로서의 면모를 점차 복원해 가는 한편 이래저래 방문객들도 꽤 들끓는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이 정의고을을 필자는 이런저런 조사를 서두느라 번질나게 드나들어 본다. 文化財管理局의 조사의뢰에 따라 民俗資料保護區域 指定을 위한 民族誌의인 조사를 거치고 그 결과는 《旌義고을》²⁾로 묶어 보기도 했다. 1973년 여름에는 濟州大 文化財研究會 학생들과 더불어 연 45일 동안이나 그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를 벌여 보았었다.

이 마을에 대한 民俗資料保護區域 指定保存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懸案들은 예기되었던 대로 한참 空轉을 거듭하기도 했었다. 그런 과정에 필자는 제주도의 의뢰에 따라 《民俗村 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保存方向》³⁾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정의고을이 主宗이었음은 물론이다. 한편 金鴻植은 《民俗村 指定對象地域 調査報告書：城邑一里，東明里 南門洞 및 明月里 下洞》(제주도, 1978)을 내었으니, 그 보고서에서는 정의고을의 家屋構造 및 住生活에 대한 치밀한 조사보고와 더불어 그 保存, 開發의 方案을 제시했다. 또한 1977년 여름에는 제주대 국어교육과에서 이 마을에 대한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學術調査報告書 제6집：城邑里 學術調査》를 펴낸 바 있다.⁴⁾ 1986년 10

- 1) 정의고을은 1980년 5월 6일 地方民俗資料 제5호로 지정, 보호되다가 1984년 6월 7일 政府指定 重要民俗資料 제188호로 확정되었다. 指定保護區域은 1,425필지, 3,191,711m²(965,488.23평)에 이른다.
- 2) 《旌義고을》(民俗資料保護區域 調査報告書 제55호), 文化財管理局, 1973.
- 3) 《民俗村 指定保存에 따른 指定對象村落概要 및 保存方向》, 濟州道, 1976. 이 보고서에서의 조사대상 지역은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一里 西上洞과 北濟州郡 翰林邑 明月里 下洞 및 東明里 南門洞 두 곳이다.
- 4) 23명(교수 5명, 학생 18명)의 참여 아래, 社會背景·方言·地名·說話·遺物 遺蹟·民謠·信仰 등에 대해 실시된 이 학술조사는 이 학과에서 1972년부터

월 呂重哲·李昌基 등이 家族構造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등 학술적 관심도 나날이 뜨거워져 간다. 이 마을에 대한 觀光開發을 둘러싼 논의도⁵⁾ 비롯되는 가운데, 요마적에 이르러 관광객들은 이 마을을 술하게 찾아든다.

旌義고을의 실화와 민요는 玄容駿과 필자 등이 조사하여 《韓國口碑文學大系 9-3》(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3)에 수록했으며, 《韓國의 民俗音樂: 제주도민요 편》(권오성·김영돈·이보형·한만영·최종민,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4)에는 그곳의 민요 몇편이 採譜되어 실리었다. 또한 임동권·김영돈·이소리에 따라 조사 보고된 《民謠》(重要無形文化財 調查報告書 166號, 文化財管理局, 1985)에서 城邑(旌義고을)의 민요 악보가 비교적 체계 있게 실리고 이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20수년간 이 마을을 드나드는 필자로서는 주민들과도 꽤 정다와지고, 골목 골목마다 익숙어져서 고향 같은 훈훈한 애정이 인다. 旌義고을을 사랑이 깃들만큼 온 몸으로 대하다가 보니, 이 마을에서 풍기는 몇가지 과제가 머리에 맴돈다. 특히 旌義고을이 지니는 유다른 빛같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旌義고을을 이룩하는 有形無形의 自然·文化와 사람살의 모습 및 思考가 한국의 어느 山村이나 제주도의 다른 마을들에 비하여 어떻게 다른가. 그 特殊性格은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논의될 수 있을까. 調查報告 概要와 더불어 떠오르는 바 몇가지 과제를 제시할까 한다.

2

旌義고을의 性格究明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의고을에 대한 이제까지의 조사 보고를 要約할 필요가 있겠다.

旌義고을, 곧 濟州道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리는 제주도의 山村이면서 朝鮮 朝初에서 약 5세기 동안 旌義縣의 도읍지였다는 二重的 性格을 지닌다. 이 二重的 性格은 정의고을이 정의고을다운 바탕을 이룬다.

제주도는 朝鮮朝 太宗 16년(1416), 安撫使 吳湜의 전의에 따라 약5세기 동안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여섯번째의 작업이었다. 그 조사결과는 《學術調查報告書 : 城邑里 學術調查》 제6집(濟州大學 國語教育科, 1977)에 수록되었다.

5) 예를 들면 徐庚林의 “濟州民俗의 觀光資源化 方案”(제주대학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979) 등이 있다.

三分하여 통치했었다. 곧, 漢拏山을 가운데 두고 대체로 지금의 濟州市와 北濟州郡을 합친 山北은 濟州牧으로 하고, 한라산 남쪽 곧 지금의 西歸浦市와 南濟州郡은 둘로 나뉘어 西는 大靜縣, 東은 旌義縣으로 행정구역이 구분되었었다. 이 三縣分立統治期間은 1914년까지 이어졌었으니 무려 498년간에 이른다. 당초 旌義縣의 도읍지는 城山邑 古城이었다. 古城里는 그 위치가 旌義縣의 구석으로 치우쳐졌다는 데서 7년만인 世宗 5년(1423)에 도읍을 정의고을로 옮겼으니, 이곳에 터전 삼았음은 정의고을이 지니는 은은한 風水가 그들의 마음을 끌었을 법하다. 곧 해안마을 表善里에서 8km쯤 올라간 정의고을은 평퍼짐한 大平原 속에 암전한 오름(峰)들이 마을을 뱅 둘러가며 불쑥불쑥 솟아 사방으로 護衛하는 아늑한 산촌이다.

정의고을 마을 뒤에는 瀛洲山(325m)이 後見人처럼 뚜렷하고, 백야기오름·본지오름·무찌오름·장자오름·갑서니오름·설오름·개오름·모구리오름·獨子峰·가시오름·이저배오름·궁대오름·좌버미오름·돌리미·문서기오름·동꺼무니·높은오름·손지오름·아부오름 등 숲한 오름들이 衛兵들처럼 솟았다. 一望無際로 탁 트인 정의고을의 들판에 들어서 보면 조화로운 大自然의 향연에 누구나 숙연해진다.

정의고을, 곧 城邑里는 1961년이후 城邑一里와 城邑二里로 나누어졌다. 城邑二里는 城邑一里에서 3km쯤 漢拏山쪽으로 올라간 곳으로 '구렁팻'(九龍洞)과 '안팻'(安保洞)을 합친 행정구역으로서 고작 65가구다(1986년 11월 1일 현재). 정의고을이라면 으레 城邑一里를 지칭한다.

정의고을은 西上洞·西下洞·東洞·西洞으로 나누어졌고, 성뒗골·가가비통·막은골·아득골·남문골·벌런방죽·창뒗골·옥골·왕돌목·뚝부리·노드리방죽·안밭·생교골·닥남밭·벤저리동산·므름터·공문동산·성뒗·빌렛동산 등의 자연부락이 있다. 동네나 지경이름 가운데는 예전 도읍이었다는 점과 연관되어 지어진 경우도 몇몇 드러난다.

정의고을(城邑一里)은 1986년 11월 1일 현재 316가구에 1,268명(男 602명, 女 666명)의 인구를 지닌다.⁶⁾ (城邑二里는 65가구에 남 119명, 여 127명, 제 246명으로

6) 1973년의 現地調査時 家口全數調査에 따르면, 정의고을은 251가구에 1,185명(男577명, 女608명)이었으며, 1977년에는 304가구에 1,313명(男603명, 女710명)이었다.

나타났다.) 國民學校와 農協分所 외로 公式的, 自生的 몇몇 단체가 있다. 病院·藥局은 없으며 吟社·詩會도 없다.

정의고을은 널따란 牧野地로 둘러쳐져 있다. 耕地面積은 마을 총면적의 7.4%밖에 안 되는데, 林野面積은 무려 86%에 달한다.(1973년 현재) 따라서 주민들 대부분의 生業이 半農半畜이다. 정의고을의 戶當平均耕地面積은 8.89反步로서 表善面의 평균(12.21反步)에 비하더라도 썩 좁다. 3町步이상의 농토를 가진 농가가 불과 10호뿐이다. 경지면적이 비좁은데다가 土質이 메마르고 氣候가 걸맞지 않으며 옛부터 농사는 시원치 못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의 貸與穀을 상당량 배정받았어야만 식량이 충당되었었고, 요마적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자급자족한다. 農畜 다음의 주민의 所得源은 油菜와 靑茅다. 靑茅란 새를 푸른 때 베어 말려서 김을 넣어말릴 때 쓰이는 것으로 주로 莞島지방으로 수출한다. 기후탓인지 菜蔬재배가 힘들어서 表善등지에서 사들이곤 한다. 이곳 출신 在日同胞의 투자에 따라 마을주변에 감귤원도 점차 불어나는 추세다.

주민들의 중요한 나들이는 表善五日市場 출입이다. 오늘날 정의고을은 평범한 山間農村일 따름이요, 表善은 小都邑이면서 面所在地인데도 表善으로 나가는 것을 古老들은 “村에 간다”고 말한다. 5백년의 도움주민으로서의 긍지가 울씨년스레 깔려 있는 셈이다.

정의고을 안에 들어서면 마을 한복판에 千年樹로 이름난 느티나무가 원의 중심처럼 의젓하고, 그 주변의 흰칠한 팽나무들과 旌義縣廳 日觀軒이 우리의 눈을 끈다. (이 느티나무와 팽나무는 天然紀念物 제161호로, 日觀軒은 地方文化財 제1~7호로 각각 지정 보호되고 있다.) 마을 둘레에는 城이 쌓였었고 오늘날에도 일부 남겨졌는데, 원래 이 城은 둘레가 2,986척, 높이가 13척이었다 한다. 李元鎮의 《耽羅志》⁷⁾ 등에 보면 현청소재지로서의 官署들이 더러 드러나지마는,⁸⁾ 이제는 그 자취를 찾을 길 없고 주민들의 기억 속에 아련히 남겨졌을 뿐이다.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旌義鄉校 大成殿은 현청소재지가 古城里에서 이곳 城邑里로 옮겨지는 해(1423)에 세워진 것이다. 이 밖에 당시 고을로서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機構 施設을 李元鎮의 《耽羅志》에서 간추리면 倉庫·鄉約·祠

7) 李元鎮: 《耽羅志》旌義縣 宮室條, 1653.

8) 客館東軒 ○衙 在客館北 ○官廳 在衙南 ○鄉所廳 在客館西座首一人別監二人 ○出身廳 時數五人 ○武學廳 時數三十三人已三人已上二廳附鄉所廳 ○作廳 在衙東記官書員持印同接焉.

廟·將官·軍兵·奴婢 등이다.

정의고을에는 <벽수머리> 또는 <무성목>이라 불리는 돌하르방 12기가 있다. 필자도 1968년 문화재관리국의 의뢰에 따라 돌하르방의 位置와 規格, 名稱, 機能, 歷史의 由來 등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지만,⁹⁾ 개괄적인 데 그쳤을 뿐이어서 여기에는 많은 과제가 쌓였다. 濟州牧·大靜縣도 그렇지만 돌하르방이 원래 몇이었던지 밝힐 길도 없다. 원래부터 12기라면 東·西·南門 각각 4기씩이라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정의고을의 돌하르방은 거의가 原位置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른바 돌하르방이라는 제주도내의 州縣城 石像 47기¹⁰⁾가 원래 濟州·大靜·旌義 州縣城 城門 앞에 세워졌었으리라는 推斷의 근거를 필자는 몇 가지 제시해 본 바 있다.¹¹⁾ 어차피 <벽수머리> 또는 <무성목>이라 불리는 정의고을의 돌하르방을 두고도 그 基數, 位置, 名稱, 形態, 由來, 製作過程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정의고을에는 본디 巫俗信仰處가 20개소 가까이 散在했었는데, <안할망당>·<광주부인당>·<일렛당>·<개당>은 아직 남겨졌다. 정의고을 주민의 身數와 건강을 관장한다는 <안할망당>의 성격은 온 마을 사람들이 신앙하는 ‘안칠성’이라 볼 수 있다. 婦人病이나 母乳 등을 관장한다는 <광주부인당>의 由來에는 縣監夫人의 治病을 위하여 殉死했다는 그의 侍女 光주부인의 애절한 이야기가 감돈다. 마소의 질병과 양육 등을 관장하는 <쇄당>이 있었음은 정의고을 주민들이 농사와 함께 牧畜이 主生業이라는 점과 연관되는 터인데, 어차피 유별난 일이다.

정의고을에서는 儒式部落祭인 酬祭가 아직도 치러진다. 그 祭享은 여느 마을과 비슷하지만, 祭享對象神 가운데 <牧童神之位>가 끼어들었음이 유다르다. 농업과 더불어 축산업이 주민들의 주된 生業이라는 한 증거인 터이다. 곧 祭享對象神을 보면 上壇의 神은 <酬神之位>요, 下壇의 神은 <諸首任神之位>·<染疾神之位> 외에 <牧童神之位>가 끼어든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백중날 마소와

9) 필자; 《濟州島의 石像·石具》(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제50호), 文化財管理局, 1968.

10) 濟州牧의 도읍지 성내(지금의 濟州市)에 21기, 大靜縣의 도읍지 대정고을(大靜邑·保城·仁城·安城)에 12기, 旌義縣의 도읍지 정의고을(表善面 城邑里)에 12기 및 서울 景福宮으로 옮겨진 2기를 합치면 47기에 이른다.

11) 필자의 앞의 보고서, p.6.

畜産을 위해 치르는 <백중고수>도 성행했었다.

정의고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성음교회>와 <大韓佛敎法華宗 靈佛寺> 및 國際道德協會(一貫道) 등의 公認宗教施設이 있다.

성음교회의 연혁은 도내에서도 敎會史의 초기에 해당되는 1910년까지 치올라가는데도¹²⁾ 布敎의 걸음이 느려서 40대 이상의 信者는 단 1인이요, 대체로 어린 학생들뿐이다. <一貫道>라 부르는 국제도덕협회는 1960년대초에 이 마을에 자리잡았는데, 겨우 명맥만 이어 간다.

정의고을에서는 여느 마을보다도 걸궁이 盛行했었다. 최근에도 1969년에 <안할망당>의 큰굿에 대비한 祭需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 주최로 걸궁을 치른 바 있다. 古老들의 전승¹³⁾에 따르면 걸궁은 본디 정의고을에 와서 사는 본토인들이 비롯했으며, 점차 이 마을 주민들에게도 번졌다 한다. 지난날에는 마을 公金이 필요한데도 분담 징수가 번거롭거나 할 경우, 이민의 합의에 따라 음력 정초에 가끔 걸궁을 벌였었다. 정의고을의 걸궁은 도내에서도 꽤 알려져서 文化祭 같은 잔치에는 흔히 출연하곤 한다.

정의고을에는 민요 또한 가멸지다. 정의고을은 넉넉한 환경의 평범한 山村임과 더불어 5백년간의 都邑地라는 二重性格을 띠거니와, 이곳 민요 또한 이 兩面性을 두루뭉수리로 전한다. 그 하나는 제주도의 어느 山村에서나 전승되는 勞動謠·儀式謠 등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 도읍이었기 때문에 전해지는, 정의고을만이 지니는 唱民謠다. 여느 마을에 비하여 민요가 풍성한 까닭은 이 二重構造에 터전한다. 따라서 정의고을에서는 도내 여느마을과 마찬가지로의 민요가 불리는 위에, <龍天劍>·<觀德亭앞>·<중타령>·<질군악>·<오강산타령>·<사랑가>·<잡은 사랑가>·<제화타령>·<동풍가> 등 도내 어디에서도 들어 볼 수 없는 唱民謠가 유별스레 전해진다. 또한 勞動謠 가운데서도 발매면서 부르는 <아웨기>·<홍애기>라는 빛깔 짙은 민요는 정의고을에서만 구성지게 불리며, 말방애(연자매)를 짙으며 부르는 매우 드물고 짙고 끈끈한 노래도 이 마을에서는 가락의 틀이 잡혔다. 제주도 唱民謠의 대표적인 <오돌또기>나 <산천초목>·<봉지가> 역시 정의고을에서는 그 韻致가 한결 제격이다. 정의고을의 唱民謠는 본토에서 특히 京西道民謠가 流入되어 본디의 가락과 사설이 바래진 것

12) 康文昊·文泰善: 《濟州宣敎70年史》, pp.110~111, 大韓예수교長老會濟州老會, 1978.

13) 表善面 城邑里에 거주하는 宋之俊翁(男85)의 證言 등.

이며, 그 交流現象, 傳承變異 등도 우리의 소중한 과제다. 어차피 본토민요와의 交流를 해야함에 있어 이러한 唱民謠들이 정의고을에 가멸지게 남겨졌음은 씩 珍重하다.

정의고을의 家屋構造 역시 특이한데 그 조사도 꽤 진척됐다.¹⁴⁾ 울타리 안의 家屋棟數도 비교적 많은 편인 듯하다. 1973년 이 마을의 家屋全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한 울타리 안을 1家垌라 할 때 家垌數는 216인데 總家屋數는 663棟이었다. 따라서 家垌當 家屋棟數는 평균 3.07棟인데 제주도의 다른 마을에 비해 높은 비율인 줄로 안다.

여느 마을과는 다른 家屋構造를 정의고을에서 살펴볼 수 있음은 도읍으로서의 面貌가 오늘날에도 남겨졌다는 증거다. ‘올래’가 시원스럽게 뚫었다든가, 露天便所가 적다는 점도 도읍이었다는 한 殘痕일 것이다. 중요민속자료 제68호 趙一訓家屋 울타리 안에는 대문 가까이 ‘말방애’(연자매)가 설치되었던 일도 특이한 일이다.¹⁵⁾ ‘말방애’가 개인소유로 설치되는 경우는 도내에서도 드물었기 때문이다.

예나 이제나 이 마을의 단하나의 교육기관인 성읍국민학교의 前身(旌義普通學校)은 그 沿革이 꽤 오래어서, 도내에서도 5개교밖에 없었던 교육기관의 하나였는데, 예전의 학생분포는 表善面·城山邑 일대에 뻗쳐었다. 文化施設이나 그 수준은 여느 산간마을이나 다름없이 범상한 편이다.

정의고을에는 지금 7대이상인 姓氏가 별로 없다. 이 마을이 지난날의 行政要地였으며 관현과 주민의 轉入出이 빈번했었다는 데도 연유되는 줄 안다.

정의고을의 里勢盛衰는 세월에 따라 뚜렷하다. 1935년 당시에는 表善面內에서는 물론이거니와 城山邑의 몇몇 마을에 비해서도 가장 많은 家口數를 지니고 있었는데, 1972년에 이르자 表善里의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表善面의 家口數는 37년 사이에 53.8%가 불어난 셈인데, 정의고을은 오히려 30가구가 줄어들었다.¹⁶⁾

정의고을 주민들의 通婚圈은 마을안에 치중되었으며, 他里로는 중산간마을을 주로 택하고 해안마을을 꺼린다. 1973년의 현지조사의 결과 初婚年令이 18~

14) 예를 들면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濟州道, 1973)에서 金正基·金鴻植이 조사보고한 “建築篇”(pp.263~330) 등.

15) 필자: 《研子磨》(民俗資料調查報告 第43號), p.14, 文化財管理局, 1975.

22세, 특히 20세(16.1%)에 쏠리고 있어서 早婚하는 경향이 짙은 듯한데,¹⁷⁾ 이 또한 흥미 있는 과제다.

이 마을 주민의 姓氏는 康·金·李·洪·高·宋 등의 순서다. 가장 많은 康氏만 하더라도 谷山康氏와 信川康氏의 兩本인데다가 전인구의 불과 23.1%이므로 非同族마을이라 볼 수 있다. 주민의 學歷은 산간마을로는 평범한 편이다.

정의고을의 家族構造를 보면 2人家族世帶와 1人家族世帶가 비교적 많다.¹⁸⁾ 이곳이 현청소재지였다는 점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3

정의고을의 地理·歷史·生業과 고을로서의 遺物·傳承文化·社會·住民構造·家族構造 등을 개관하는 사이에 정의고을을 둘러싼 몇가지 과제가 우리앞에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그렇다할 결론을 표방하지 않고 우리의 조사연구과제가 과연 무엇인가를 떠오르는 대로 몇가지 간추리는 데 있으므로 이를 몇항목으로 제시할까 한다.

16) 1935년과 1972년의 表善面內 里別戶數 對比

里 名	家 口 數		增 減
	1935 年	1972 年	
表 善 里	320	736	+ 416
下 川 里	150	291	+ 141
城 邑 里	372	342	- 30
加 時 里	323	300	- 23
細 花 里	188	392	+ 204
兎 山 里	151	252	+ 101
合 計	1,504	2,313	+ 809

資料：1935年度～宋之俊 所有
1972年度～表善面事務所

17) 拙稿：“旌義고을(2)”(《耽羅文化》 제4호,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5)의 pp.11~12의 “現年令과 初婚年令과의 關係”表 및 “初婚年令” 그래프 參照.

18) 위 글의 p.22 參照.

① 旌義고을 地形의 風水地理的 觀點

정의고을 마을주변은 여느 마을과 달리 은은한 風水의 韻致가 감돈다. 해안 마을 表善里에서 川尾川 냇가를 따라 8km쯤 올라가면 마을 남쪽에 병풍처럼 둘러친 瀛洲山(325m)이 둥긋이 드러나 의연하고 아늑한 洞口에 이른다. 필자가 정의고을을 처음 찾았던 1959년 한여름의 오후 이 마을의 첫인상은 아직도 선명하다. 表善에서 川尾川 냇가를 따라 주변에 불쭙불쭙 솟은 오름들을 쳐다 보며 퇴약별 아래 허덕허덕 먼 길을 걷고 처음으로 정의고을을 대했던 감격이 지금도 새롭다. ‘올라니못’·‘시거니못’을 거치고 정의고을 어귀에 이르면 마을위를 둘러친 瀛洲山의 외외한 모습이 한결같이 厚德한 마을어른처럼 모든 삶을 包容하는 자세로 압도해 온다. 旌義縣의 도읍지를 古城에서 옮겨 올 즈음(1423)에도 그 風水地理的 見解는 꽤 고려되었을 법한데,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로 흥미로움직하다.

② 縣廳所在地로서의 舊官署 確認

정의고을은 우회곡절 끝에 1984년 6월 7일 政府指定重要民俗資料 제188호로 확정되었다. 우리는 바람직한 민속마을을 꾸며 나가야 할 계제에 이르렀는데 舊官署를 정확히 復元하는 일도 주요한 과제의 하나다. 이의 復元을 위해서는 충분한 考證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文獻이 충분치 못하다.¹⁹⁾ 李元鎮의 《耽羅志》 등 몇몇 史籍이 있고, 李衡祥의 《耽羅巡歷圖》에는 〈旌義操點〉·〈旌義養老〉·〈旌義講射〉 등 다행히도 입체적인 그림이 실렸지마는²⁰⁾, 舊官署의 位置와 元貌를 밝히는 데는 모자라다. 현지주민(예를 들면 宋之俊, 男, 85)의 口傳資料 등도 참고가 되겠지만, 어차피 이의 정확한 고증은 우리의 至難한 과제다.

19) 拙稿: “旌義고을 (1)” 《耽羅文化》 제2호, pp. 221~226,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

20) 李衡祥: 《耽羅巡歷圖·南宦博物》, pp. 34~36,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

③ ‘벽수머리’·‘무성목’이라 일컫는 돌하르방에 대한 의문

약 5백년간(1416~1914) 제주도가 濟州牧·大靜縣·旌義縣으로 나누어졌을 때 그 도읍지였던 성내(지금의 제주시 중심가), 대정고을(大靜縣 保城·仁城·安城), 정의고을(表善面 城邑里) 세군데에 남겨진 돌하르방 47基(2基는 景福宮에)는 우리의 적잖은 관심거리다. 필자는 문화재관리국의 의뢰에 따라 그 位置와 規格, 名稱, 機能, 歷史的 由來에 대하여 개괄적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²¹⁾ 同學들에 의하여 본토의 장승과 함께 활발한 논의가 거듭되지마는, 많은 과제가 未解決인 채로 남겨져 있다. 어차피 세곳의 것을 두루뭉수라로 묶어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마는 정의고을에서 국한하더라도 다음 몇가지가 우선 의문스럽다.

(가) 정의고을에는 원래 돌하르방이 몇이었고 그 由來는 어떠한가.

(나) 정의고을 돌하르방의 제작방법은 어떠한가.

(다) 정의고을에서는 돌하르방을 ‘벽수머리’, 혹은 ‘무성목’이라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일까.

(라) 정의고을의 돌하르방은 濟州牧이나 大靜縣의 돌하르방에 비하여 그 모습이 다른데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 個性的 形態는 정의고을 사람들의 心性과 그만한 연관이 혹 있는 것일까.

이 돌하르방은 한본토의 장승과 같은 맥락에서 고찰되는 경향인데, 그 근거로서 전라남북도 및 경상남도에서는 장승을 ‘벽수’·‘벽시’·‘법수’·‘법시’라고도 불리 듯이²²⁾ 제주도내에서도 정의고을에서만은 ‘벽수머리’라 불리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21) 필자: 《濟州島의 石像·石具》(無形文化財調查報告書 제50호), 文化財管理局, 1968.

22) 李鐘哲: “장승과 솟대에 대한 考古民俗學的 接近 試考”,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p. 505, 1984.

金斗河: “장승類의 名稱 考察”, 《韓國民俗學》 19, pp. 55~137, 民俗學會, 1986.

④ 民間信仰의 特質

정의고을에는 20개소쯤의 巫俗信仰處 堂이 있었는데, 지금 남겨진 것은 <안할망당>을 비롯하여 7개소다. <안할망당>은 정의고을 주민 전반의 身數와 安寧을 관장한다고 믿으면서 각가정과 밀착되었고, 그 유래도 갖가지로 전승된다든가, 아직도 <올레코스>가 이뤄진다는 점과 함께 民間信仰上 주목할 만하다. 다만 儒式部落祭인 酬祭가 아직도 치러지는데, 그 祭享神 가운데 <牧童神之位>가 끼어든다는 점은 農業과 더불어 畜産業을 生業으로 하는 주민생활과 관련해 볼 때 示唆의이라 할 것이다. 5백년간 縣廳所在地 당시로 소급해서 그 實相을 밝힐 길이 있으면 여느 마을과는 다른 民間信仰上의 特異性도 더욱 自明해 지리라 본다.

⑤ 公認宗教에 대한 不關與性

정의고을 주민들은 基督教든 佛敎든 公認宗教에 대해서 냉담한 편이다. 靈佛寺도 敎勢가 미미한 편이거니와, 특히 1910년에 발족한 예수교장로회 城邑敎會는 그 연혁이 濟州敎會史 初期인데도 지금껏 40대 이상은 단 한분만 신앙하고 전식구가 信者인 경우도 단 한가구뿐임은 무엇을 뜻할까. 公認宗教와의 이런 平行線의 關係는 縣廳所在地의 주민들 特有的 氣質 때문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흥미로운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⑥ 걸궁의 實相과 그 由來

정의고을은 제주도내에서도 걸궁을 아주 신명나게 치렀던 마을로 알려졌고, 요마적에도 文化祭 같은 행사때 빈번이 再演하곤 한다. 그 걸궁은 自生的인 게 아니라, 이 마을에 入住한 본토인들에 따라서 치러지기 시작했다는 말도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본토와의 交流도 주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의 遊樂의 氣質도 고찰해 봄직하다.

⑦ 多樣, 豐富한 民謠

정의고을에서 전승되는 민요는 豐富하고 多樣할 뿐더러, 전승자들이 썩 즐겁

게 부른다. 정의고을은 山間마을이면서 도읍지라는 二重構造에 따라서 정의고을의 민요 역시 이 兩面性을 지닌다. 제주도의 모든 농촌에서 불리는 민요에다 정의고을 특유의 唱民謠가 없지므로 제법 다채롭고 가멸지다. 곧 정의고을에서는 勞動謠나 儀式謠가 여느 마을처럼 노래되고 발매면서 부르는 <아웨기>·<흥애기>라는 개성질은 민요를 보유하는 한편, 도내 어느 마을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唱民謠(<용천점>·<관덕정알>·<중타령>·<질군악>·<오강산타령>·<사랑가>·<작은 사랑가>·<계화타령>·<동풍가> 등)가 전해진다. 특히 京西道民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이 唱民謠와 본토민요와의 交流實態가 音樂的, 文學的으로 밝혀져 나갈 때 그 位相이 더욱 돋보일 것이다.²³⁾

⑧ 家屋構造의 특징

정의고을의 家屋은 제주도 농촌의 일반적 가옥형태를 지니면서 5백년 도읍지로서의 특성이 加味된다. 이곳 가옥구조의 특징을 면밀히 추출하고 다른 지역의 농촌가옥과의 對比研究는 우리의 소중한 과제다. 이미 重要民俗資料로 지정된 조일훈·고평오·이영숙·한봉일·고상은가옥²⁴⁾ 및 도내에서 草家の原型이 집단적으로 잘 보존된 西上洞 一帶의 가옥들에 대한 保存策도 마땅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⑨ 家族構造의 특징 및 早婚風習

1人家族世帶와 2人家族世帶가 다른 마을에 비하여 많다는 등 이곳 家族構造의 특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정의고을 주민들은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早婚하는 傾向이 짙은 듯하다. 1973년 필자의 현지조사에 따르면, 정의고을 여인들의 初婚年令은 20세에 집중되었음을 보고 그 早婚傾向을 推斷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연유에 대한 高찰도 필요하다.

23) 拙稿: “城邑民謠의 實相”, 《논문집:인문학편》 제20집, 제주대학교, 1985.

24) 《文化財大觀:重要民俗資料篇(上)》, pp.52~63, 文化財管理局, 1985. 그 조사 집필진은 孟仁在·申榮勳·金一鎭·金鴻植·필자 등인데, 정의고을(城邑)의 다섯 가옥은 필자가 담당했다.

⑩ 里勢變動

정의고을은 그 里勢變動幅이 두드러져서 그 起伏이 뚜렷하다. 1930년대 이래의 기록이나 현지조사에 따른 戶數(家口數) 및 人口數의 變動만 보더라도 이내 그 變動幅이 드러나는데, 그 實相과 原因究明은 우리의 소중한 과제라 할 것이다.

⑪ 주민의 意識構造

정의고을 주민들의 意識構造에는 어디엔가 유다른 빛깔이 드러난다. 그 유다른 빛깔의 實相이 어떠한지, 어떤 연유에서인지 밝혀 나가기에는 여러 측면에서의 심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필자도 이를 잠간 논의해 본 바 있지만²⁵⁾ 실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상 몇가지 과제를 제시해 보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필자가 조사 보고하던 가운데 파생된 바 의문에 따랐을 뿐이며, 體系的으로 導出된 과제일 수는 없다. 엄격히 말하자면 旌義고을 전반에 대한 民族誌的인 조사항목 하나하나가 그대로 우리의 연구과제가 될 것이며, 그 각각에 대한 深層的인 조사와 논의가 필요할 줄로 안다.

25) 拙稿; “旌義고을 (1)”, 《耽羅文化》제2호, pp. 45~51,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83.